

# 예술에 예술을 더하니 '감동 두배'

무용과 미디어 아트가 만나고, 무용과 창작음악이 만난다. 또 그림과 음악이 어우러진다.

최근 다양한 장르가 결합한 문화 행사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열리는 광주작곡가협회(회장 신동민)의 정기 발표회는 기존의 발표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의 발표회가 작곡가의 신작을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그냥 들려주는 데 반해 이번엔 진행되는 음악회는 무용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다.

'Sound and Movement Project'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는 무용을 위한 창작곡들로 꾸렸다. 조애란 곡 'Kabale und Liebe' 박은영 곡 'Modification' 안만석 곡 '내면 아이에게로의 여행V', 신동민 곡 '지금 몇시입니까?', 안재범 곡 '침', 윤대근 곡 '임계 시 무어별(無語別)', 김승일 곡 '바이올린과 첼로의 대화-어느 연인들의 슬픈 대화'를 만날 수 있다.

박선욱(광주여대 교수)씨가 이끄는 돌음무용단이 현대적인 몸짓으로 곡의 느낌을 표현하며 김승일씨의 곡은 오윤환씨가 안무한 발레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신동민 회장은 "성악과 기악곡을 들려주는 기존 공연과 달리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공연이 될 것"



광주작곡가협회 발표회서 무용 공연

그린발레단, 미디어아트 진시영 협업

23일 김진화 개인전서 이동원 공연

이라며 처음 시도해 보는 공연이라 긴장되고 하고, 기대도 된다"고 말했다. 전석 1만원. 문의 010-3611-7391

오는 12월 1일 오후 6시 광주광산문화예회관에서 공연되는 그린발레단(단장 박경숙)의 신작에는 미디어아트 작가 진시영씨가 참여했다.

박 단장이 안무한 '빛의 정원'은 원시적 삶과 현대의 고도로 발전된 삶이 결코 다르지 않고 그 가치와 근본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몸짓으로 표현한 컨템포러리 발레 작품.

진 작가는 승무, 살풀이춤 등을 형상화한 자신의 작품 '흐름(flow)'을 기반으로 '발레'의 몸짓과 어울리는 영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터 2개를 활용해 벽면과 무대 등에 영상을 투사, 무용수의 움직임 등을 극대화 하게 된다. 문의 062-950-3768.

그림과 음악이 어우러진 행사들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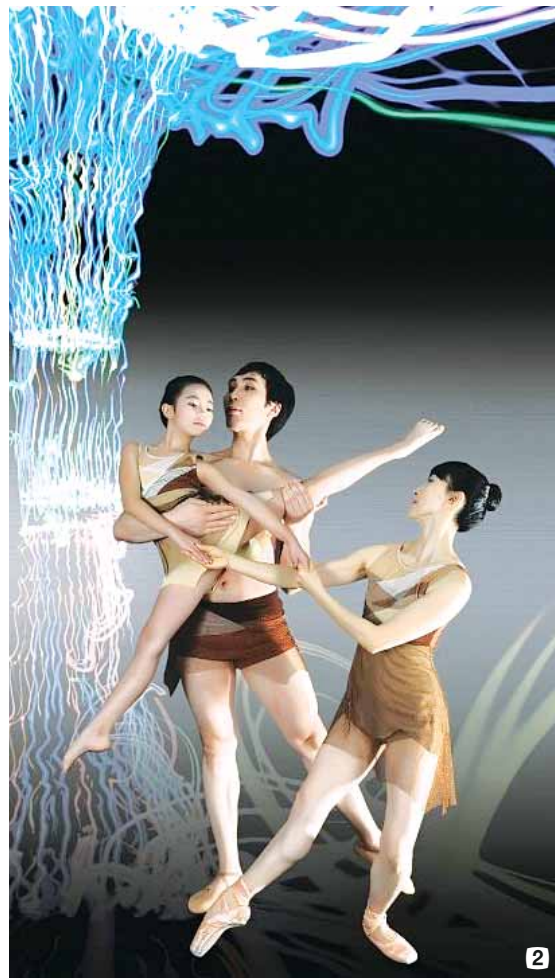
담양에 위치한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은 23일~12월 4일까지 진행되는 김진화 개인전과 함께 방석음악회를 진행한다.

23일 오후 7시 열리는 방석음악회의 주인공은 '황수', '이별노래' 등을 부른 가수 이동원이다. 공연 수익금은 12월에 열리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행사의 기금으로 활용된다.

광주신세계 미술상, 광주미술상, 하정웅청년작가상 등을 수상하고 대담 미술관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시간과 공간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음악회 티켓 1만원. 문의 061-381-0081.

그밖에 24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로비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한국의 대표적인 재즈 뮤지션인 신광웅 콰르텟, 소프라노 김선희, 테너 김백호씨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062-613-715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 김진화작 '그랑 자뜨 섬의 일요일 오후의 재회'  
2 그린 발레단 '빛의 정원'  
3 가수 이동원



## 판페라 이순신, 그의로운 합성

도립국악단 정기공연 내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전남도립국악단(상임지휘자 박승희) 정기공연이 24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창작극 판페라 '이순신'이다. 판페라는 우리 전통 판소리에 오페라적인 요소를 가미한 장르.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조선 수군이 불과 13척으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크게 이긴 명량해전을 재구성한 '이순신'은 '칠전량 해

전', '백의 종군', '명량해전 전야', '강강술래', '히데요시의 죽음', '노랑 전야' 등 모두 8장으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 영상으로 만들어진 장중한 무대가는 눈길을 끌며 객원 배우를 비롯, 80여명이 출연한다. 대부분 임영옥 작가, 작곡은 황호준 씨가 맡았다.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061-375-6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음악으로 전하는 선교와 사랑

광주장로찬양단 정기연주회 26일 문예회관

음악으로 선교와 사랑을 전하는 광주장로찬양단(단장 윤재우 장로)이 오는 26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제 20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창단 20주년을 맞는 이번 연주회에서 단원들은 '다 와서 주 이름 찬양하세', '신의 영광', '일어나 빛을 받하라' 등을 합창으로 들려준다.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는 내 것이라' 등을 노래하고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등은 부부 합창으로 선사한다.

광주지역 72개 교회 장로 105명으로 구성된 광주장로찬양단은 지난 1992년 창단 이후 미국, 호주, 중국, 독일 등 전 세계를 돌며 공연과 다양한 선교활동을 펼쳤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소의 청소년들과 음악 나눔

쿠니어 콘서트, 오늘 성안교회

쿠니어(총감독 유은숙)의 마음 나눔 콘서트가 23일 오후 7시 광주성안교회에서 열린다.

'쿠니어'(Kunior)는 한국을 뜻한 'Korea'의 K와 Junior의 합성어로 '한국의 청소년'을 뜻하며 저소득층과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 공연 프로젝트의 이름이

기도 하다.

이번 무대에 서는 이들은 1기 회원 20여명으로 바이올린, 첼로, 드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작은별', 헨델의 '울게 하소서',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삽입곡, '목장길 따라' 등이다.

쿠니어에는 김수진·허혜정·유은숙·박지유·손유찬·박현진씨 등 재능 기부자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문의 062-654-83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자연과 명상 김재균 전 의원 개인전 29일까지 은암미술관

김재균 전 국회의원이 23일부터 29일까지 광주시 동구대의동 은암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자연과 명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20년 가까이 운주사를 그려온 김 전 의원만의 화풍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 '와불의 꿈' 등 30점이 전시관을 가득 채운다. 김 전 의원은 향토색 짙은 남도를 비롯, 우리나라의 자연

을 담은 작품 '월출산의 기운', '금강산집선봉하경'과 불상 등에 새겨진 역사의 숨결을 형상화해 화폭에 펼쳐놓는다. 여섯번째 개인전인 만큼 그동안의 작품 변화상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도의 자연을 바라보는 작가만의 시각도 엿볼 수 있다. 문의 062-231-5229.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강산'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 소파 식탁 대전

홍스페이스 SPACE 1899-0240

금일 입점 신상품 120 종류

www.hong79.com(홍친구닷컴)